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너희도 서로
남의 발을
씻기 주어야 한다.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사순절 제3주 】
(2부 선찬양. 313. 내 임금 예수)

인도 1부 : 이범석 목사
2부 : 김재홍 목사

- 전 주 반주자
 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 다 함께
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
 ▲ 경배의 찬송 17. 사랑의 하나님 다 함께
 ▲ 공동기도 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우리에게 생명의 봄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겨우내 죽은 듯 보이던 나뭇가지에는 초록빛이 감돌고, 그 끝에는 아기 같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, 우리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.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끌어올려 우리의 영혼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.

주님, 계속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.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.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.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 어느 해보다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 땅 위에도 평화의 봄을 허락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- ▲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
 ▲ 위로의 말씀 사53:5,6 인도자
 ▲ 교 독 문 126. 사순절(3) 다 함께
 ▲ 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
 2부 대표기도 박성희 권사
 2부 응 답 송 반주자
 2부 찬 양 412. 내 영혼의 그윽히 다 함께
 ▲ 성경봉독 고전 9:13~18 1부:인도자/2부: 주은경 권사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
 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

봉 독 자
 다 함 께

특 송	주님 내게 물으시니	윤예운 청년
말 씬	일꾼이 받을 샀	김기석 목사
거뭇 기도		다 함께
2부 찬 양	454. 주와 같이 되기를	다 함께
▲ 봉 헌	317. 내 주 예수 주신 은혜(1·5절)	다 함께
▲ 봉헌기도		김기석 목사
공동체 소식		김기석 목사
▲ 평화의 인사		다 함께
▲ 보냄의 말씀		다 함께

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.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값없이 귀한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 우리 또한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. 대가나 보상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.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을 샀입니다.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충실하게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십시오.

다 합 께 : 아멘. 직분의 의무와 책임보다는 권리와 권한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. 주님, 다시 복음의 정신을 붙들겠습니다.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할 것을 충분히 받았음을 잊지 않겠습니다.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된 복음의 길을 충실히 따라가겠습니다. 주님,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. 아멘.

▲ 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▲ 축 복		김기석 목사

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다음주	1부 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이범석
	2부 김기석	박홍재	홍선희	김재홍

-  청과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- 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- 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과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- ※ 헌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과교회)

